**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급할 때는 기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혹은 자기가 아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이 경우 기도는 자기의 무력함의 표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기도 역시 무력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무언가 달라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달라야 하며, 또 다를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를 마치고 오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쩌면 제자들의 이 요청은 오늘 우리의 요청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물론 이 주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대로만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 기도할 수도 있고, 또한 이 기도의 지침을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기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적절한 태도와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 ‘주님의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기 원합니다.

우선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주님의기도가 그 앞에 언급된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언급하십니다.

첫번째 예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행하던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뽐내려고 회당과 큰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십니다.

두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는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응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기를 원치 않을 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을 자식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빗대어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7:9-11).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뱀을 달라 하는데 그대로 뱀을 줄 부모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때로 부모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생선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적절한 때 적절한 만큼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반응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께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 불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줬는데 그게 자녀가 원한 것이 아닐 때가 있지요. 그로 인해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마음을 몰라주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사랑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주고받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얻기까지 시간이 지연되어도 넉넉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설령 원하는 것을 얻게 되더라도 기쁨이 적고,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언급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란 무엇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좋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2장 9-12절의 말씀이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2:9-12).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과 지혜만으로는 결코 그 좋은 것을 알아보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내 마음은 소망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에서 다음으로 주목하기 원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은 저 류광현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신 서규성 집사님의 아버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인공동체 교우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체코와 일본공동체 교우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연합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다 깊이 체험합니다. 성찬식 중에 한국 교우들은 보통 눈을 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편 성찬식 중에 체코 교우들은 보통 눈을 뜨고 나와 더불어 주의 식탁에 둘러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봅니다. 과거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곧 신앙 안에서의 피의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에 왔던 암미유럽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정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꼬빌리시와 보흐니쩨에서의 성찬식을 꼽았습니다. 특히 보흐니쩨에서 참여한 성찬식에서 그들은 큰 믿음의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정신병원 환우들과 같은 잔을 돌려마셔야 했는데, 그것은 저 역시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찬식을 집전한 꼴라즈 목사님은 중간중간 잔을 닦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입을 대도록 잔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후에 한 자매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정말 못할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잔이 다다르자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에 입을 댈 수 있었고, 그 후에 찾아온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우리’가 의미하는 바를 그곳에서 체험으로 실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온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요한 사도는 단호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4:20).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의해 언급된 ‘우리’의 개념 속에는 아직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10:16).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5:44-45).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다른 이들을 함께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공동체적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기도 역시 한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중보기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사랑의 매개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것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헬라어는 ‘우라노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우라노이스’, 즉 ‘우라노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이 복수로서의 하늘이 지칭하는 것은 땅의 상대 개념인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그저 위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불의와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분이 이 땅의 아버지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함을 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분의 남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초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어, 그분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 앞에 나아갑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십니다. 스스로를 ‘고아들의 아버지’라 칭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기도문의 첫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시며,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늘 가까이서 돌보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본격적인 간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상 이 기도는 간구이기 이전에 찬양입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 높여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높고 위대하시다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찬양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참으로 알고 믿으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는, 바로 그 일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은 나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기도를 따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저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소서” 간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기는커녕 그 이름을 더럽히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겔36:23)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이름을 아끼시고, 마침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그분 자신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 앞에 나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위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기도를 따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고 또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참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며, 점차 우리의 삶이 곧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삶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